

반도체 소부장

NAND 공급 부족 심화, 우리도 증설이 필요해

반도체 소부장. 이동주 / natelee@sks.co.kr / 3773-9026

Signal: NAND 공급 부족 심화

Key: 26년 중국 팹, 27년 국내 신규 팹 NAND 증설

Step: NAND 민감도가 높은 소부장으로 확장

NAND 공급 부족 심화

- AI 학습에서 추론 영역 확장으로 이전 대화와 문맥을 기억하는 KV 캐시 수요 급증. HBM에서 SSD 까지 Spill-over 시작
- DRAMexchange에 따르면 NAND Spot Price는 2월말 이후 6주간 최대 80% 상승
- 반면, 공급 단에서의 제약은 DRAM 보다도 큰 상황. NAND 제조사들은 최근 2-3년간 업황 부진으로 감산 및 전환 투자에 집중. 고단화 전환으로 Wafer Capa는 자연 감소
- 당장 탄력적인 증설 대응 쉽지 않음. 현재 투자가 가능한 국내 팹 공간의 우선 순위는 DRAM이며, 이마저도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국내 NAND 신규 투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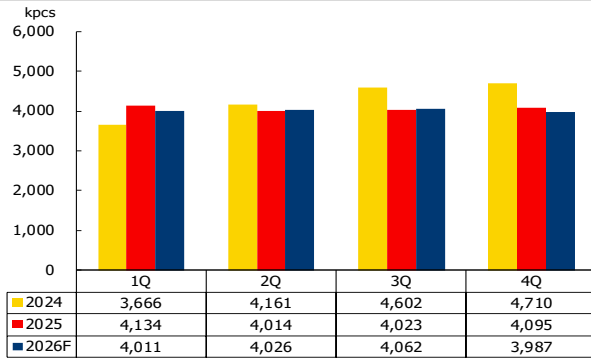
중국과 국내 신규 팹에서의 증설 움직임

- 우선적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중국의 NAND 팹을 활용할 것으로 추정
- 삼성전자 시안 1 공장은 최근 V8으로 전환 투자를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되며, 하반기 램프업 준비. 시안 2 공장은 V9 전환 투자를 앞두고 있으며 30-45K 수준으로 파악. M-Fab의 신규 투자 가능성도 존재하나, 우선적으로 채널홀과 같은 병목 공정을 위한 증설 예상
- SK 하이닉스 다렌 1 공장은 192단 중심으로 전환 투자보다 노후화된 장비 교체를 통한 공정 효율 개선에 집중. 다렌 2 공장은 건물 외관을 확보된 비어 있는 팹으로 하반기 V8 신규 투자가 30-50K 집행될 것으로 전망
- 2027년은 국내에서도 NAND 신규 투자가 재개될 가능성 높음.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신규 팹(P5, Y1)은 트리플 팹 구조로 Ph6까지 상당한 클린룸 여유 공간을 확보. 일부 공간이 NAND로 할당될 것으로 보이며, 2H27부터 투자 재개 예상
- 키옥시아, NAND 투자 지난해부터 시동. 2026년 요카이치 팹 30K 증설, 기타카미 팹 300단대 양산 가동. 마이크론, 싱가포르 내 신규 NAND 팹 착공, 2028년 본격 양산

NAND 민감도 높은 소부장으로 확장

- 소부장 내에서는 그 동안 DRAM 중심의 증설 기대감으로 전공정 장비 업체의 모멘텀이 두드러졌음. NAND 관련 실적 민감도가 높은 업체로 선호 영역 확장시킬 수 있는 시점
- 소재/부품이 통상적으로 NAND 향 비중이 높은 편. 여기에 삼성 파운드리 모멘텀까지 붙어 있는 **코미코, 솔브레인, 동진씨미캠, 원익머트리얼즈** 매력도 우위. 전공정 장비 내에서도 NAND 수주 효과가 큰 **테스, 피에스케이** 선호

최근 3개년 NAND Wafer Input 추이 및 전망



자료: Trendforce, SK 증권

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배치도



자료: Naver, SK 증권

P5, Y1 트리플 펌 구조로 클린룸 공간 상당



자료: SK 증권

COMPLIANCE NOTICE

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
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.

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
투자판단 3 단계(6개월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

SK 증권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(2026년 04월 15일 기준)

매수

93.83%

중립

6.17%

매도

0.00%